

상아질형성부전증(Dentinogenesis Imperfecta)

상아질형성부전증은 골형성부전증(osteogenesis imperfecta)을 종종 수반하는 치아기형으로, 높은 표현율(penetrance)의 상염색체 우성장애(autosomal dominant disturbance)이다. 이 장애는 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빈도를 나타내며, 유치열과 영구치열에 다 발현된다.

〈임상적 특징〉

- a) 치아의 외양은 호박과 같은 투명도 (amberlike translucency)를 보이며, 황색에서 청회색의 다양한 color를 보인다.
- b) 법랑질은 치아로부터 쉽게 부서져나가, 성인에서 종종 치은까지 마모된다.
- c) 노출된 상아질은 착색되어, 마모된 치아의 색깔은 암갈색 심지어는 검은색으로 변화된다.

〈방사선학적 특징〉

- a) 치관의 크기는 정상이나, 치경부의 constriction

으로, 球根모양 (bulbous appearance)을 보여준다.

- b) 경미한 것에서 현저한 정도까지 교합면의 교모를 보여준다.
- c) 치근은 보통 짧고, slender하다.
- d) 치수강은 부분적 또는 완전 폐색을 보이고, 근관은 보이지 않거나, 실같이 얇게 (threadlike)나타난다.
- e) 치근주위 방사선투과상(periapical radiolucencies)이 치수와 관계없이 건전한 치아와 관련되어 발견되기도 한다.
- f) 상, 하악골의 구조는 정상이다.

〈처치〉

- a) 5~15세의 어린아이의 경우: 치아위에 full overdenture를 장착시켜 준다.
- b) 성인의 경우: 치아발거 후 replacement가 추천된다. 이경우, alveolectomy가 요구되기도한다.



사진 1. 치경부의 현저한 constriction과 가늘고 tricuspid한 치조(46402)을 보여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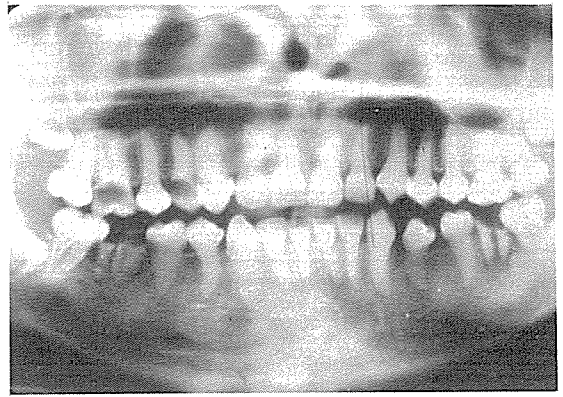


사진 2. 치경부의 constriction과 치수강의 부분적 또는(53886) 완전폐색을 보이고, 근관은 보이지 않거나 threadlike하게 나타난다.

崔鍾煥 치과기공소

서울·종로구 승인동 1081

전 화 : 93-6671 . 93-2998